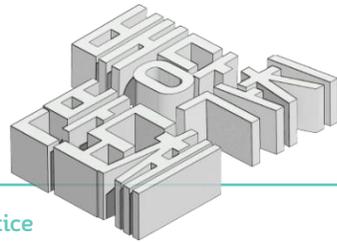


# Contents

Part 1.	하반기 배당/가치주 우위 전망	4
Part 2.	걱정인형 만들기?	17
Part 3.	배당 등, 기타 증장기 알파 전략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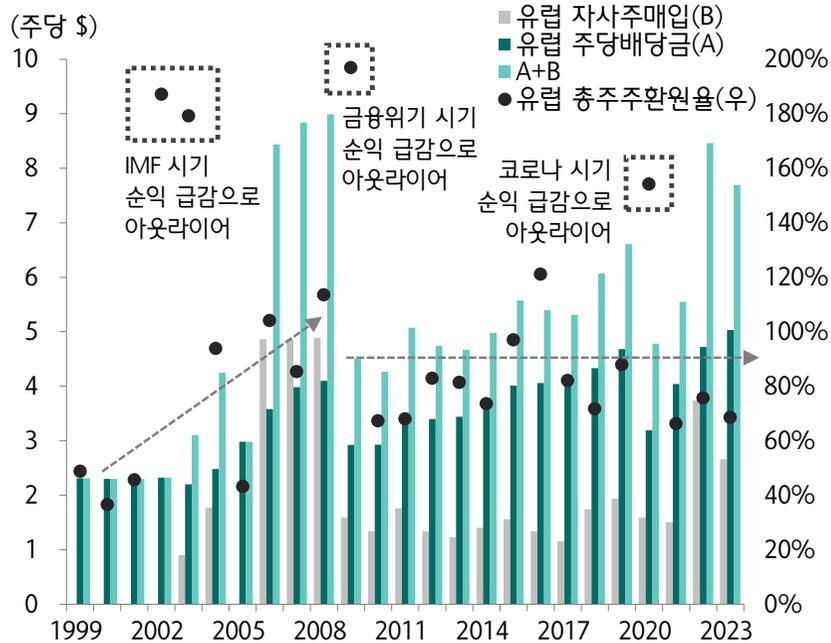
####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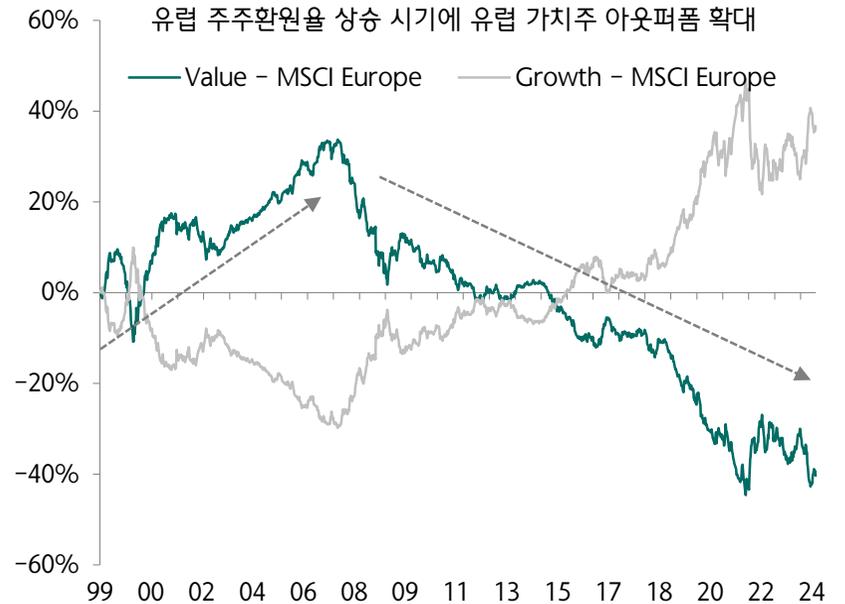
##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 조성, 한편 경기 Peak는 반도체 매수 시그널

- 최근 국내 주주환원을 증가 시그널 포착, 유럽 '00~'07년 주주환원을 증가 시기 가치주 증장기 아웃퍼폼 사례
- 경기 및 반도체 Peak 우려보다 반도체에 기회로 삼아야...
- 고배당 투자는 언제나 옳았다, 하나 배당모멘텀 전략 소개 ('11년~현재, 코스피대비 +680%p 아웃퍼폼)

### 유럽의 배당성향 상향 시기에 가치주 아웃퍼폼 뚜렷



자료: MSCI, Bloomberg, 하나증권



# Part 1. 하반기, 배당/가치주 우위 전망

높아지는 주주환원율,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 가치주를 편애하는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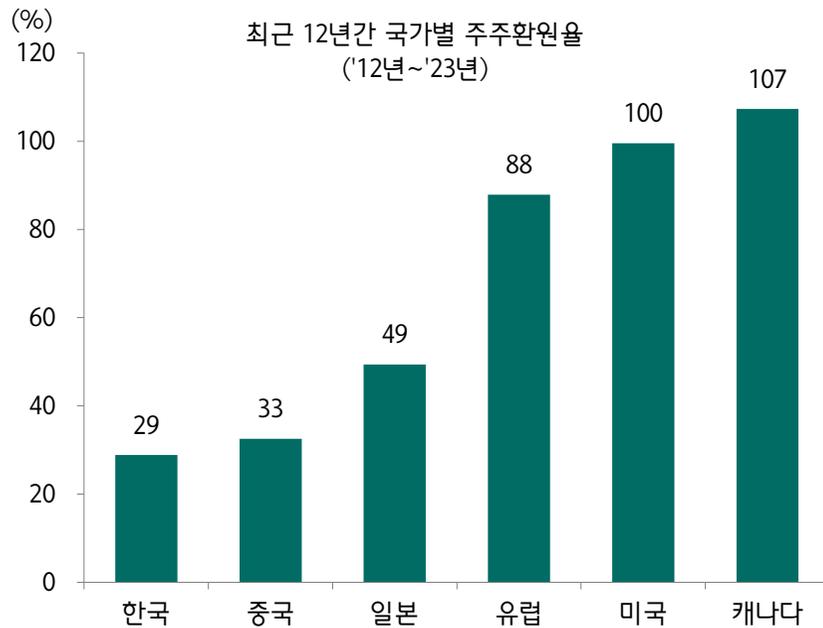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실

Quant/파생 이경수 gang@hanafn.com

## 넘치는 한국의 주주환원율 포텐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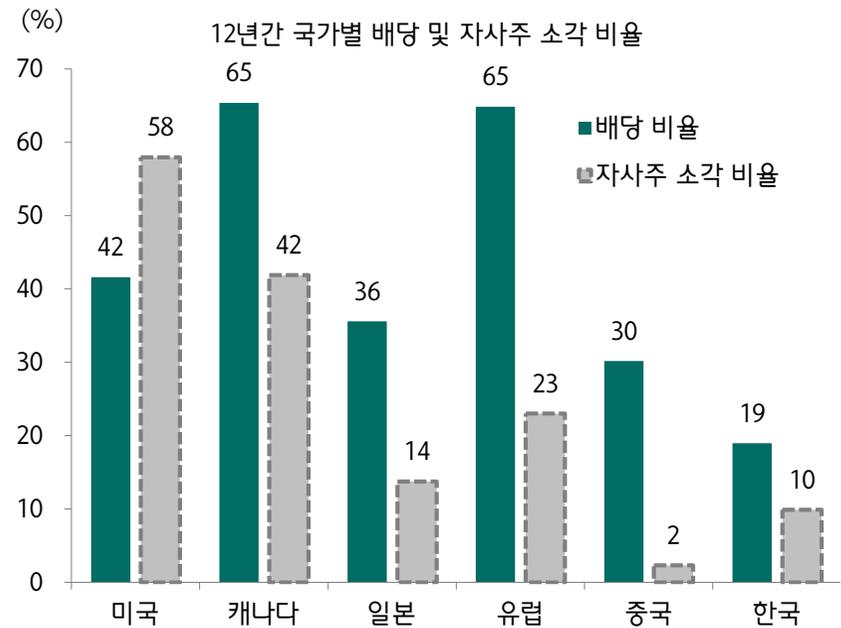
- 한국의 주주환원율은 최근 12년간 29%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
- 특히 주주환원 중 자사주 소각 비율은 특히 낮음
- 주주환원율이 선진국 수준까지 높아지기 위해서는 배당 및 자사주 소각 필요

최근 12년간 국가별 주주환원율(배당금 + 자사주소각 / 순익)



주: 순익대비 배당금 + 자사주 소각 비율이 주주환원율  
자료: Quantwise, Bloomberg, 하나증권

12년간 주주환원 중 배당금 및 자사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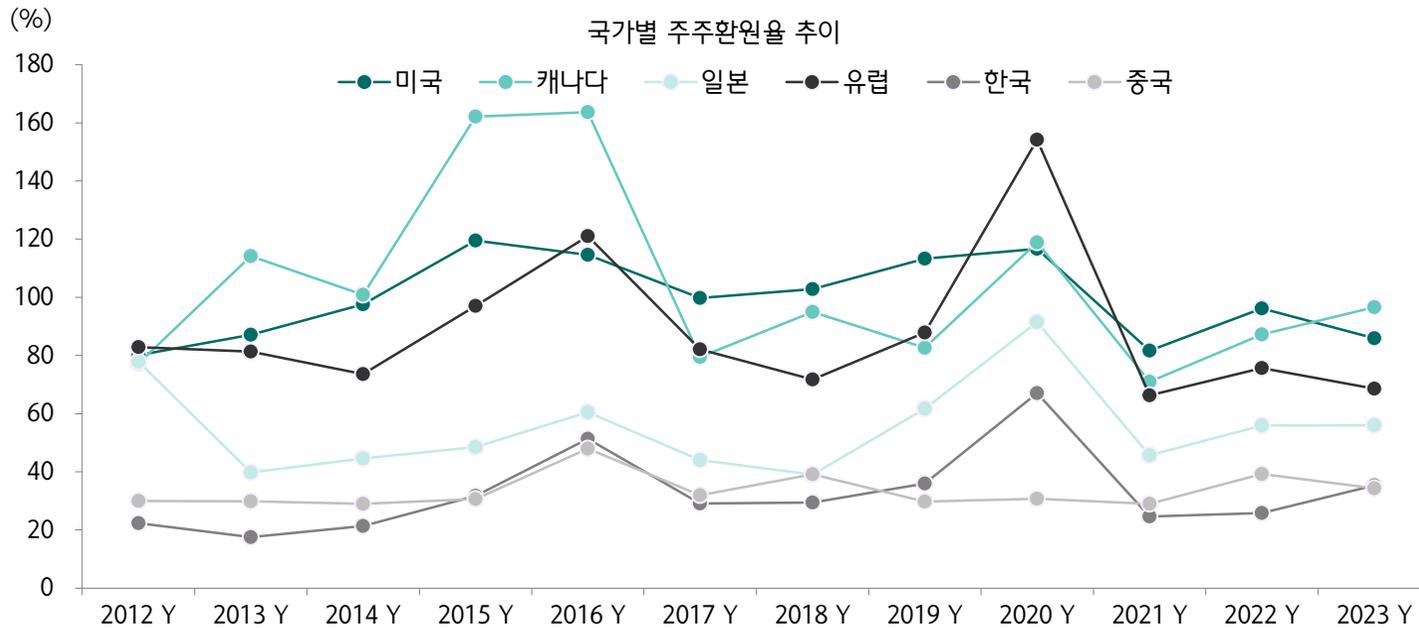


주: 주주환원율 금액대비 배당 및 자사주 소각 금액 비율  
자료: Quantwise, Bloomberg, 하나증권

## 한국 글로벌대비 낮은 주주환원을 유지

- 한국과 중국은 글로벌대비 낮은 주주환원을 꾸준히 유지
- 올해 한국 배당 및 자사주 소각 증가로 주주환원을 반등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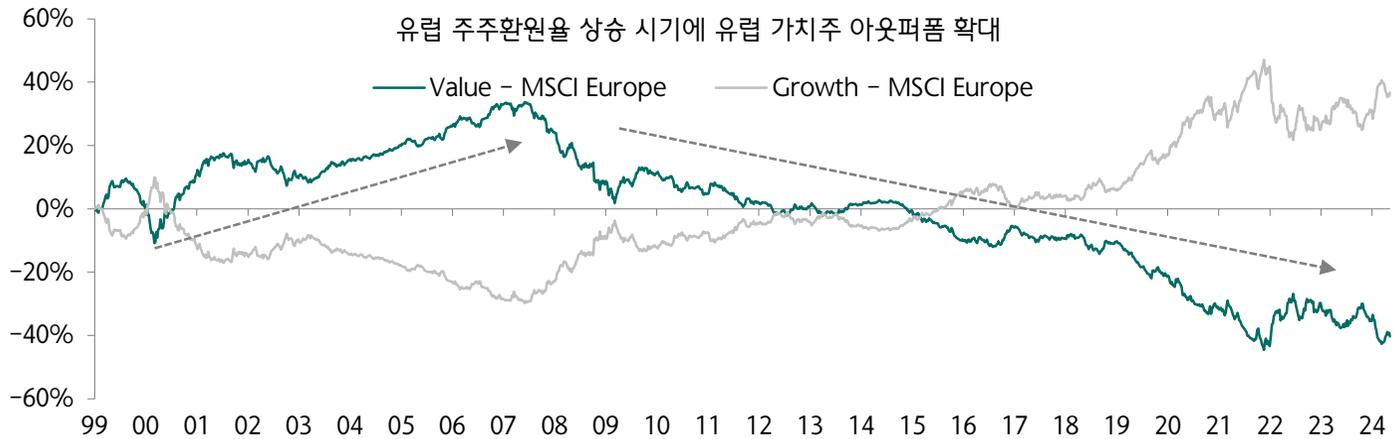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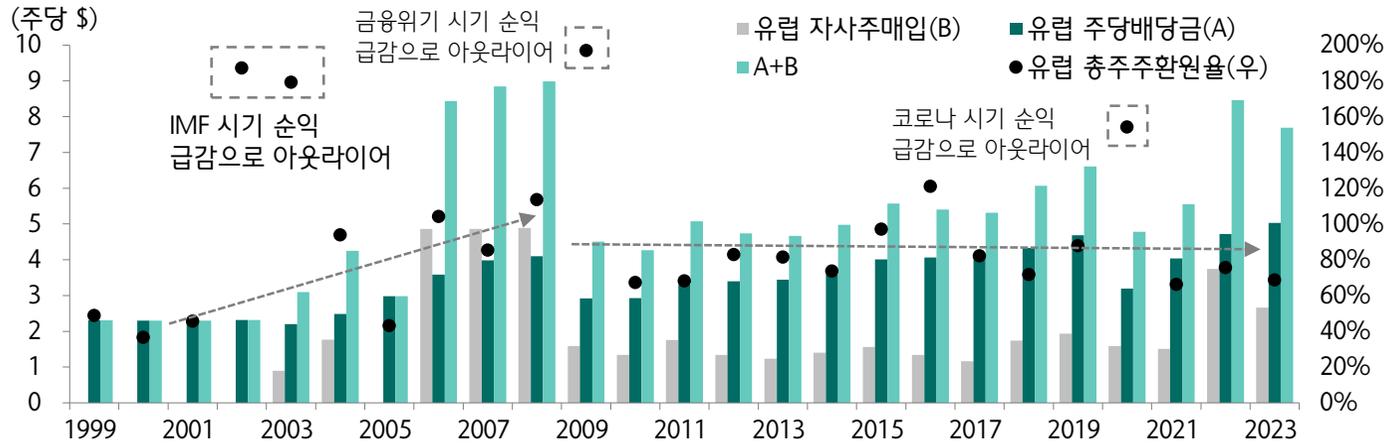
국가별 주주환원을 추이



주: 연간 확정치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배당성향 상승 유럽 사례, 가치주 아웃퍼폼 뚜렷

유럽의 배당성향 상향 시기에 가치주 아웃퍼폼 뚜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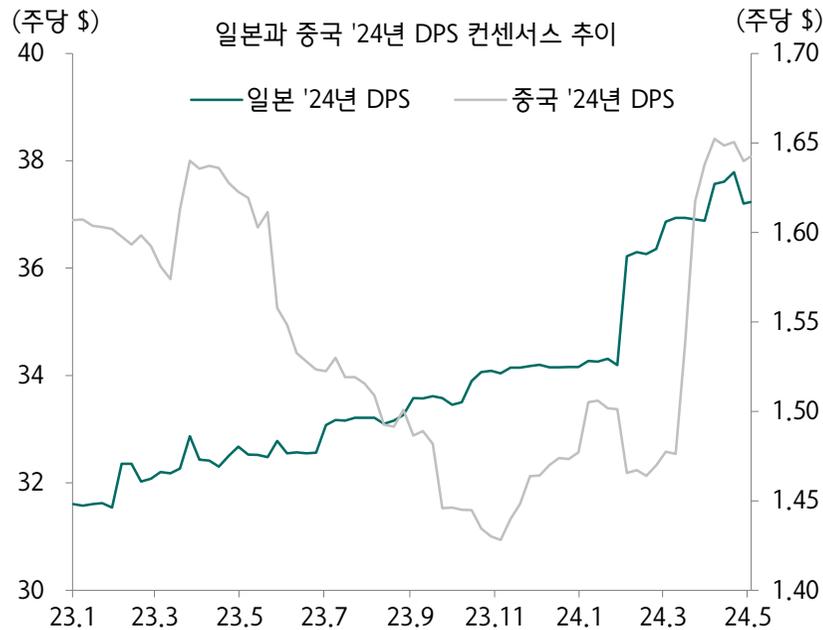


자료: MSCI, Bloomberg, 하나증권

## 중국과 일본의 배당 컨센서스는 상향, 한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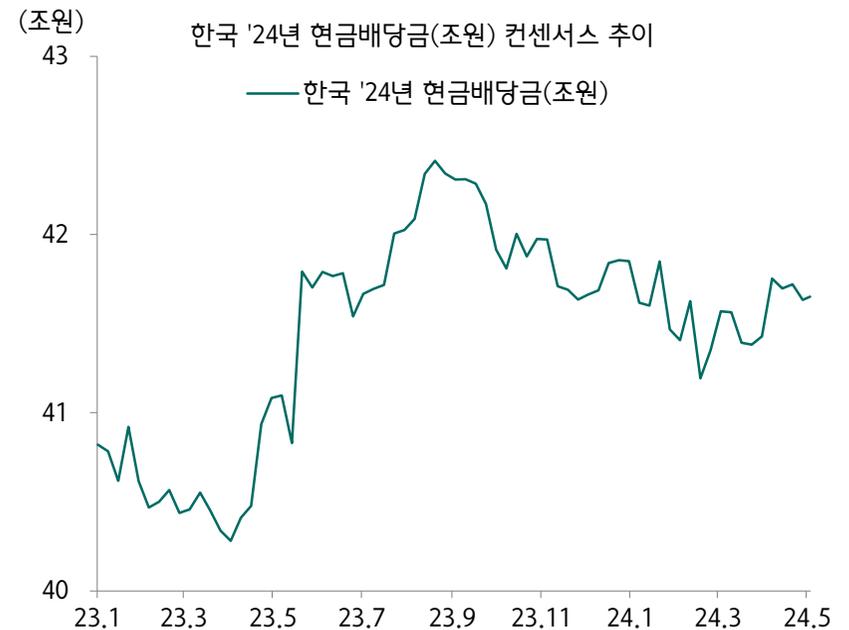
- 일본과 중국의 24년 배당 컨센서스 뚜렷한 상승
- 한국은 배당 컨센서스 최근 반등 중
- 다만 상속세 완화 및 배당 분리과세 등의 정치적 방향성이 핵심

### 일본과 중국 '24년 DPS 컨센서스 추이



주: 컨센서스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한국 '24년 현금 배당금 컨센서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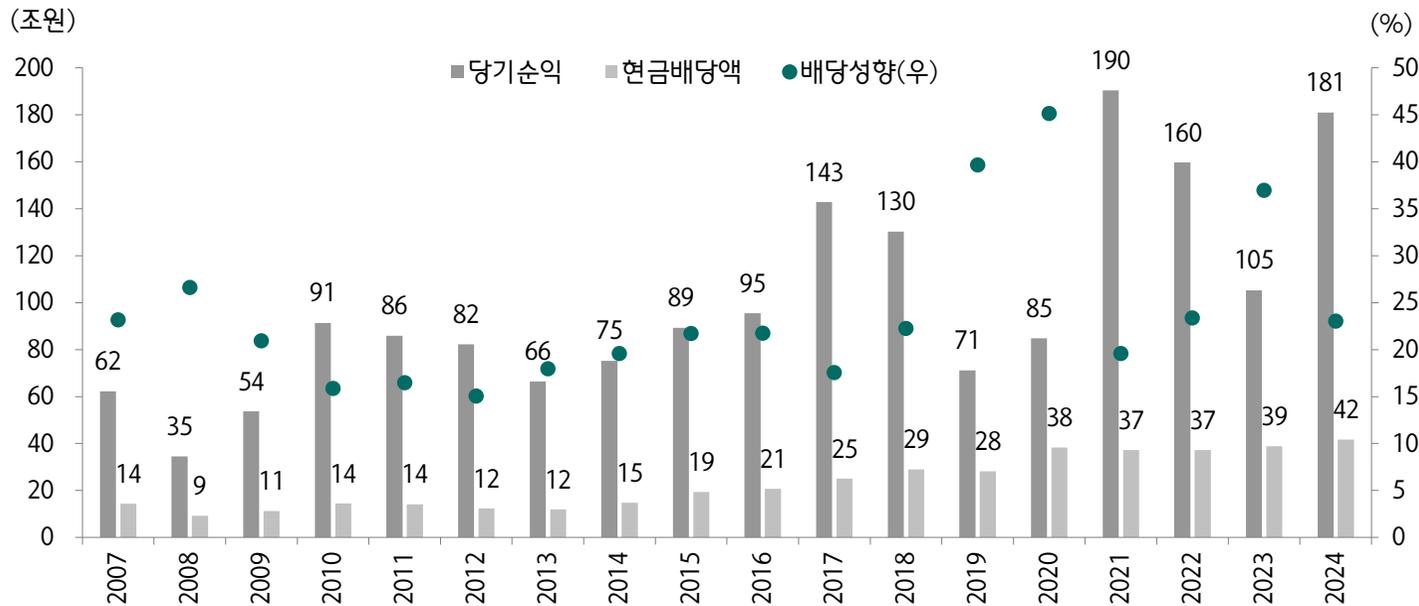


주: 컨센서스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올해 이익 증가는 배당 상향의 가장 큰 재원

- 올해 코스피 예상 순이익은 181조원으로 작년(105조원)대비 큰 폭 증가
- 배당 컨센서스는 순이익 컨센서스보다 느리게 반영되는 경향, 배당 추가 상향 가능? 한국의 경기순환형 순이익을 배당 가능?
- 관건은 국내 반도체 업종의 주주환원 정책(자사주 소각 '19년 이후 전무, 시장 배당보다 낮은 배당성향)

코스피 당기순이익과 현금배당액 추이(올해 순이익 급증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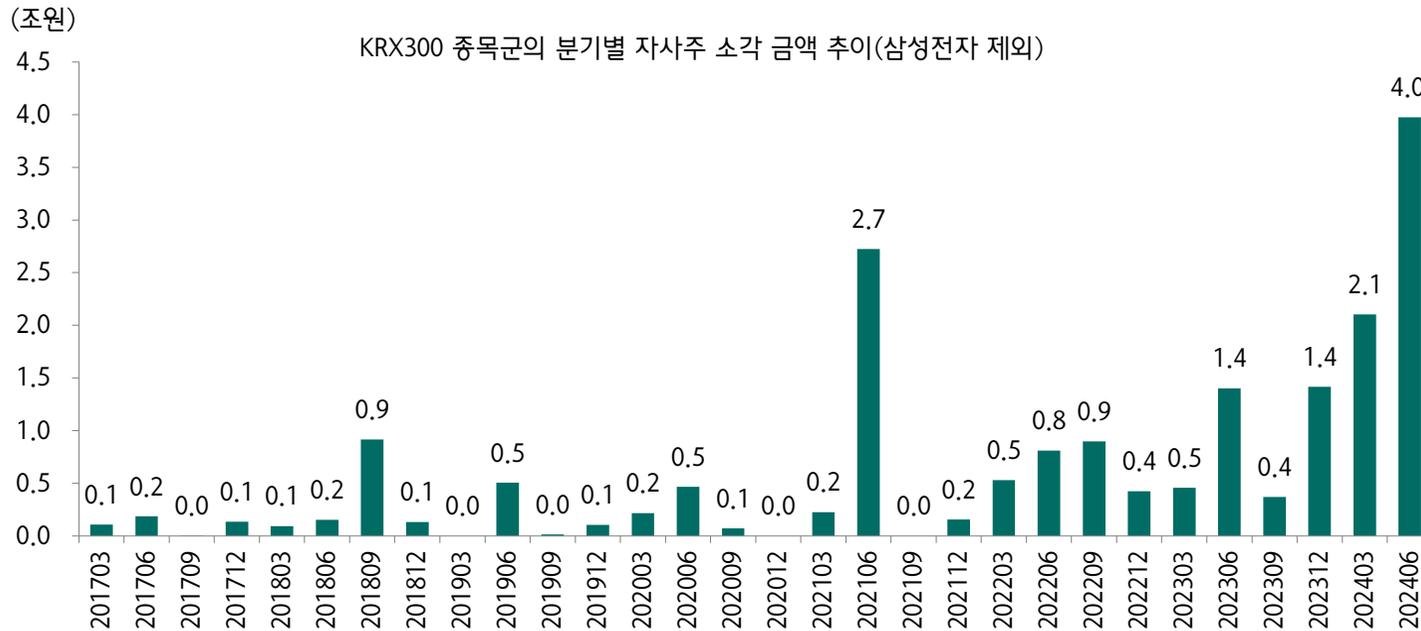


주: 2024년은 추정치(컨센서스) 기반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밸류업 정책 이후 국내 자사주 매입/소각 사례 증가

- 배당 뿐 아니라 자사주 소각 사례 증가로 주주환원을 상향 가속화 시기
- 밸류업 정책 이후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의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삼성전자의 자사주 지분을 0%, 일단 자사주 매입 시그널이 필요(SK하이닉스 5.4%)

KRX300 종목군의 분기별 자사주 소각 금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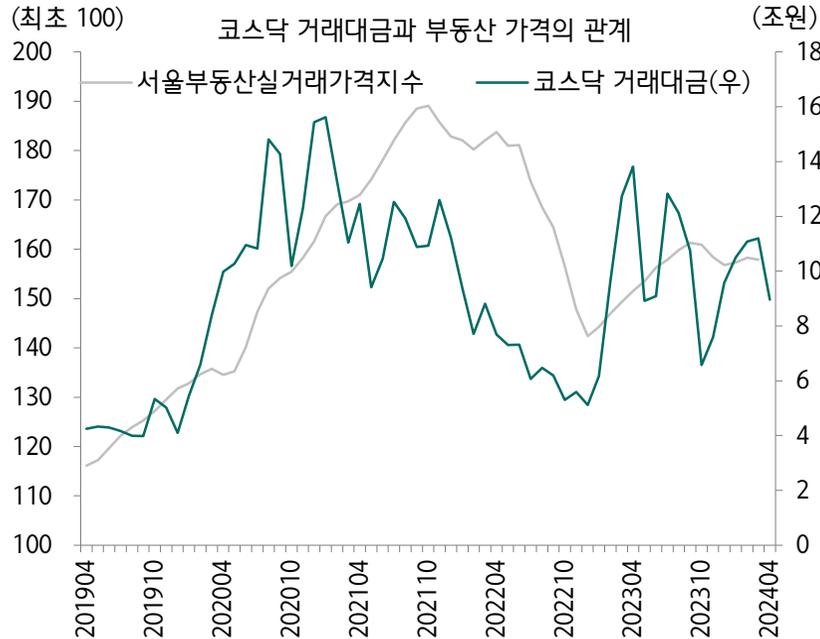


주: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은 '17~'18년도 53조원으로 샘플 왜곡, '19년~현재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 사례 없음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 철 지난 개인들의 코스닥 사랑, 가치/배당주 우위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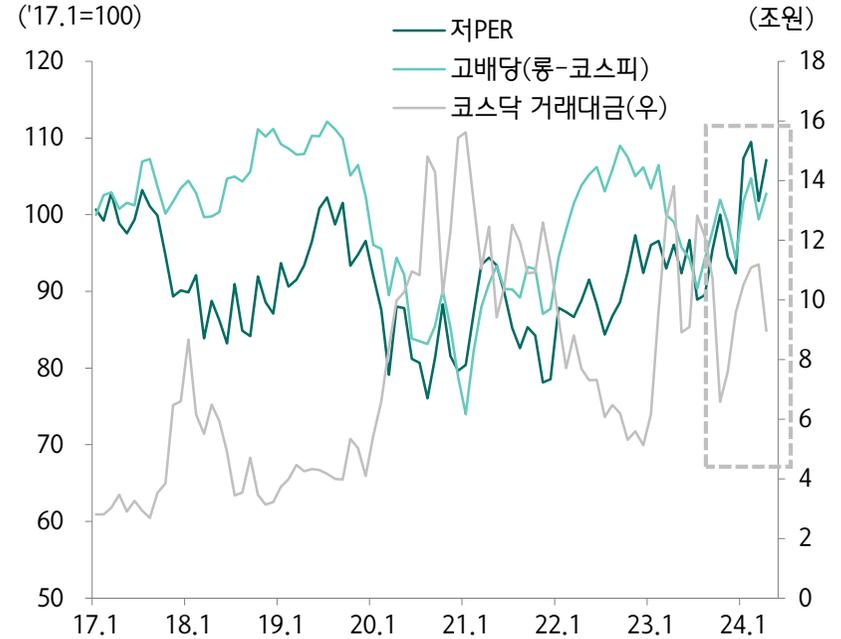
- 최근 코스닥 거래대금 하락 추세 당분간 지속 전망
- 1) 국내 부동산 경기 및 고금리 지속, 2) 금투세 우려로 인한 개인 투자 기피
- 코스닥 거래대금 하락은 가치 및 배당주에 유리한 환경

### 코스닥 거래대금과 서울부동산가격은 연동성 매우 높아



주: 코스닥 월 평균 거래대금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 코스닥 거래대금 하락은 가치주에 유리한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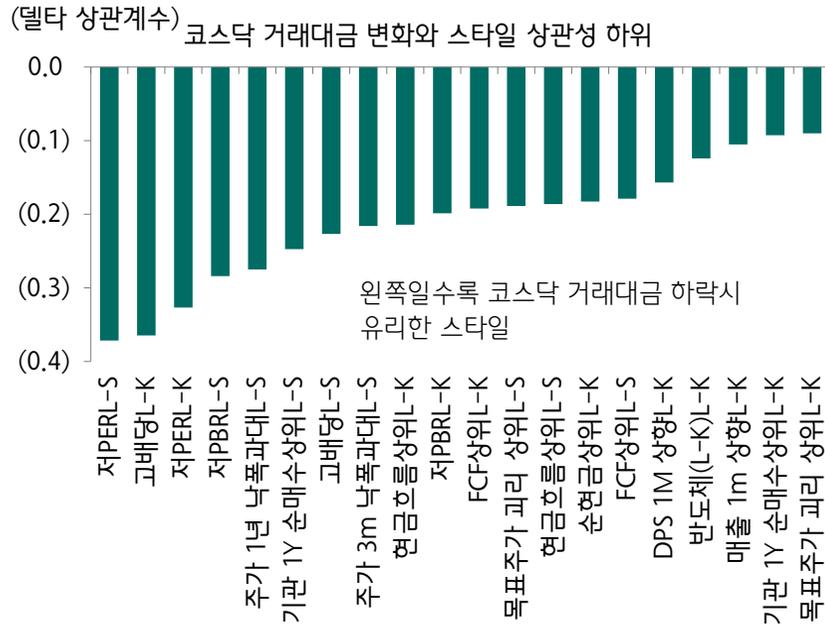


주: 컨센 존재 기업 중 상위 각각 20% 동일 가중 롱-숏, 일간 리밸런싱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 코스닥 거래대금 감소가 스타일에 미치는 후폭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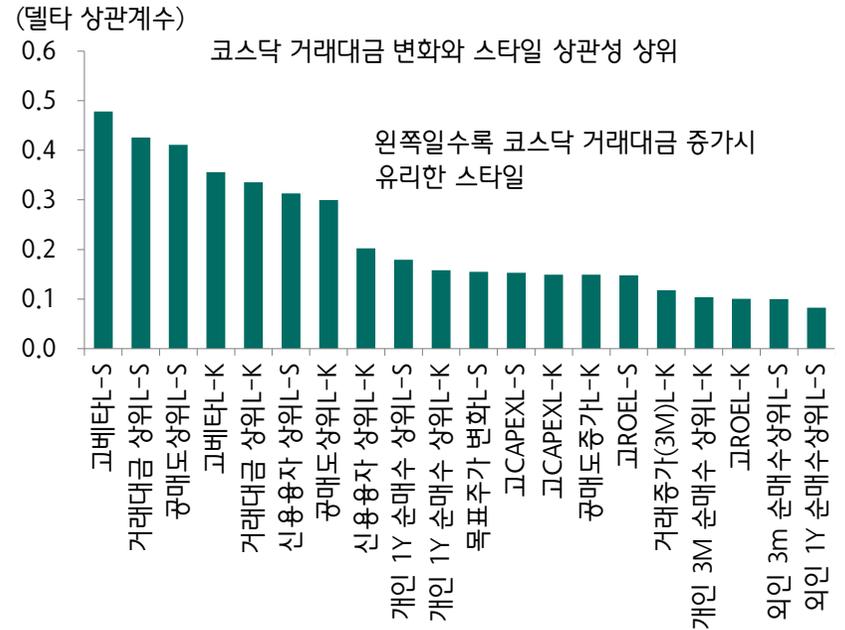
- 코스닥 거래대금은 성장주 및 가치주 성향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
- 경험적으로 코스닥 거래대금이 하락하는 현 상황에서 유리한 스타일은 단연 가치/배당 스타일
- 반면, 코스닥 거래대금 상승시에는 고베타 및 거래대금 상위(주가 변동 큰 테마주 / 성장주) 등 스타일이 유리

코스닥 거래대금이 하락하는 현 상황에 유리한 스타일('17년~현재 조사)



주: 컨센 존재 기업 중 상위위 각각 20% 동일 가중 료-숫, 일간 리밸런싱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코스닥 거래대금이 상승시 유리한 스타일('17년~현재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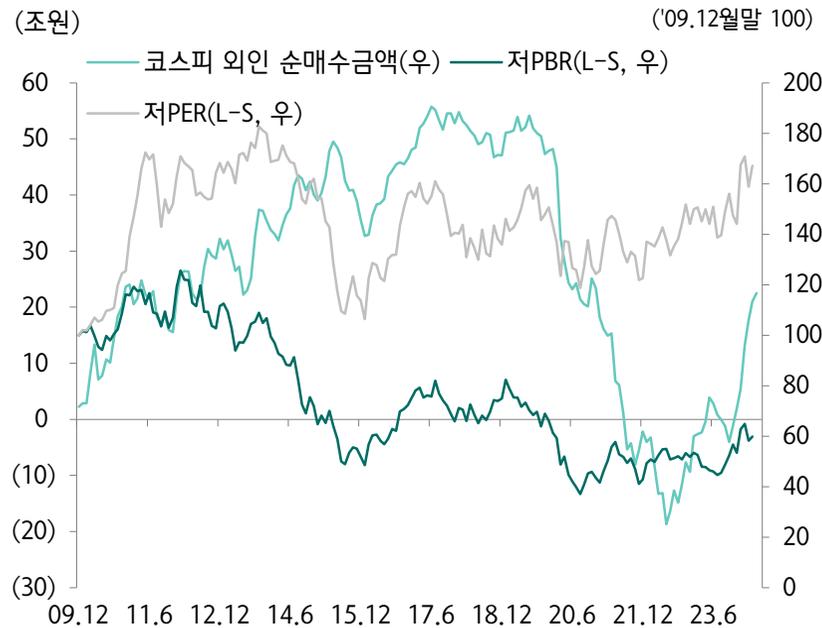


주: 컨센 존재 기업 중 상위위 각각 20% 동일 가중 료-숫, 일간 리밸런싱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한국, 중국 밸류업으로 외인 유입? 외인 유입이 밸류업 수혜주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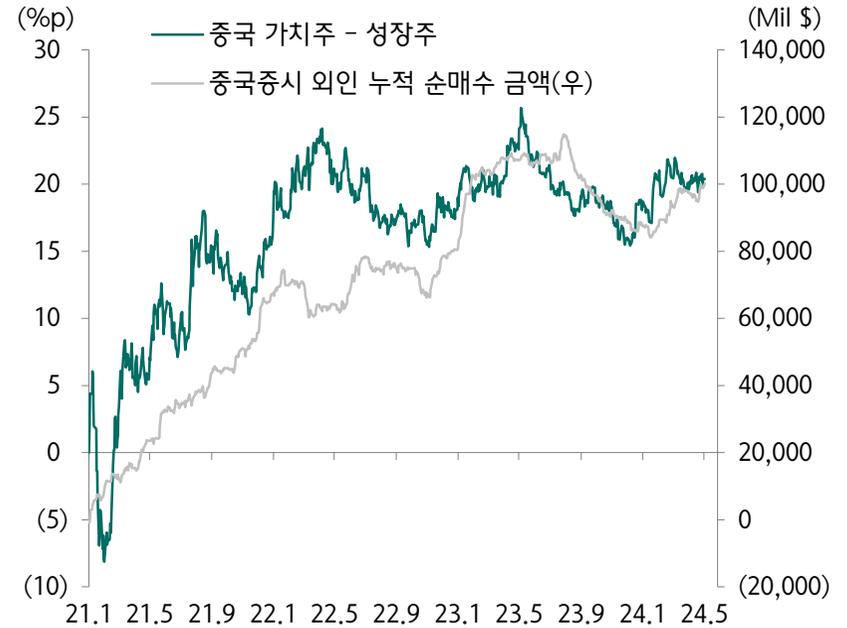
- 최근 한국과 중국 외인 매수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
- 한국의 코리아 밸류업 정책과 중국의 신 국9조 정책으로 외인 유입? Or 글로벌 위험선호가 외인 유입?
- 확실한 것은 외인 매수시에는 한국과 중국 모두 성장주보다 가치주의 아웃퍼폼 요인이었다는 점

### 국내 외인 매수세와 가치주 팩터의 연동성 높음



주: 컨센 존재 기업 중 상하위 각각 20% 동일 가중 룡-숏, 월간 리밸런싱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중국 증시내 외인 수급과 가치주 아웃퍼폼 정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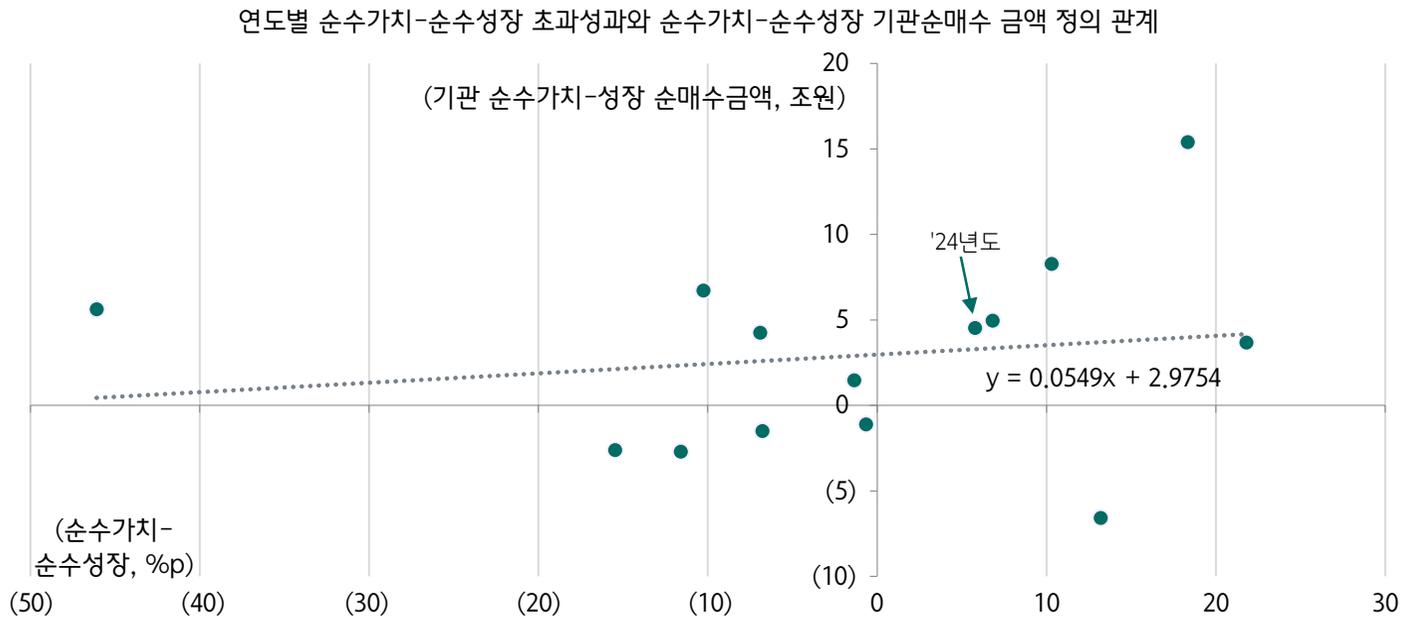


자료: MSCI, Bloomberg, 하나증권

## 기관은 스타일 베틱의 주력 세력

- 연도별 가치주의 상대강도는 연간 기관 수급에 연관
- 올해 기관의 (순수가치 - 순수성장)은 +4.5조원, 올해 (순수가치 - 순수성장 지수) +5.8%p

### 연도별 가치주의 성장주대비 초과성과와 기관의 가치주대비 성장주대비 순매수금액 분포(기관 수급은 스타일 성과에 연동)



주: 2010년~현재 연도별 분포 WMI 기준 스타일 분류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변화 (업종 순위)

- 밸류업 정책 2차 세미나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선정기준(안)
  - 당기순이익(매출액대비 순이익률 가정), 영업현금흐름, PBR, ROE,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자사주소각 등 다양한 지표를 포함
- 위 해당 지표들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 통신서비스 > 손해보험 > 유틸리티 > 은행 > 호텔레저 > 증권 > 생명보험 순으로 높은 점수

### 2차 세미나 코리아 밸류업 팩터 감안한 점수 상위 업종 (각 지표 동일 가중)

업종 순위	순이익률(%)	영업현금흐름/시총(%)	PBR(배)	ROE(%)	배당수익률(%)	배당성향(%)
자동차	8.2	30.5	0.63	15.3	5.0	22.4
전기통신서비스	5.0	52.7	0.65	7.9	6.2	52.7
손해보험	73.8	0.0	0.68	13.2	5.4	30.5
해운사	11.3	19.0	0.55	6.4	3.8	35.9
유틸리티	3.7	157.6	0.37	10.1	2.9	12.1
은행	70.1	0.0	0.46	8.7	4.9	26.9
호텔레저	10.2	11.6	1.11	9.3	2.8	40.3
증권	32.4	0.0	0.67	11.3	3.3	24.2
생명보험	76.2	0.0	0.38	5.1	4.9	36.7
택배	3.7	27.1	0.70	11.5	2.6	18.0
섬유의복	6.5	13.1	0.88	13.5	1.6	19.0
음식료	3.7	21.1	0.91	9.1	2.6	33.7
항공사	6.0	25.2	1.01	13.1	1.8	15.2
자동차부품	6.0	19.7	0.56	9.5	1.8	13.9
복합기업	1.9	41.5	0.56	5.3	2.8	30.2
반도체	12.8	15.4	1.41	11.0	1.5	20.3
상사	1.8	20.5	1.00	10.7	2.5	25.1
철강	2.6	19.0	0.51	3.6	2.3	37.6
소매(유통)	1.9	31.4	0.41	4.1	2.1	26.6
비철금속	5.5	6.8	1.05	7.3	2.0	45.8

주: '24년 컨센서스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코리아 밸류업 지수의 변화 (종목 순위)

- 밸류업 정책 2차 세미나에서 코리아 밸류업 지수 선정기준(안) 팩터 적용 종목 순위 상위는?
  - 한섬, 미래에셋증권, SK네트웍스, KT, KT&G, 키움증권, JB금융지주, 아세아시멘트, 금호석유, 현대차, 삼성물산, OCI홀딩스 등

### 2차 세미나 코리아 밸류업 팩터 감안한 점수 상위 종목 (각 지표 동일 가중)

종목	자사주비율(%)	'24년 소각비율(%)	매출순이익률(%)	PBR(배)	ROE(%)	배당성향(%)	배당수익률(%)	FCF/시총(%)
한섬	8.2	5.5	5.2	0.30	5.8	22.5	4.1	25
미래에셋증권	24.5	1.7	68.4	0.43	5.8	22.1	3.1	0
SK네트웍스	8.5	8.1	1.0	0.48	4.4	38.1	3.2	15
KT	4.5	0.3	4.5	0.53	7.2	42.6	5.6	17
KT&G	13.4	2.7	15.7	1.12	10.5	74.1	6.0	3
키움증권	5.5	2.6	72.8	0.72	14.6	15.5	3.4	0
JB금융지주	1.6	0.9	73.8	0.53	12.9	28.4	7.0	0
아세아시멘트	1.9	1.2	8.1	0.39	9.7	11.9	2.9	31
금호석유	16.0	3.1	5.7	0.65	6.7	20.4	2.0	0
현대차	2.7	1.0	7.4	0.70	13.6	20.4	5.0	12
삼성물산	8.8	3.4	5.3	0.78	7.2	20.6	1.8	5
OCI홀딩스	1.3	1.1	12.0	0.50	12.4	16.8	4.1	-4
우리금융지주	0.0	1.2	72.2	0.35	9.4	28.9	7.9	0
NHN	2.5	3.5	2.2	0.48	3.3	31.0	2.2	4
NH투자증권	0.2	1.2	75.8	0.59	8.9	40.9	6.6	0
신한지주	0.1	1.1	69.4	0.46	8.8	23.4	4.6	0
SK텔레콤	0.9	1.8	6.4	0.98	10.0	65.8	6.7	18
DL이앤씨	0.1	8.3	3.5	0.32	6.6	9.5	2.1	21
메리츠금융지주	2.1	6.3	74.0	1.72	23.5	18.8	2.6	0
에코마케팅	1.9	0.9	11.9	1.83	20.6	24.6	2.5	10

주: '24년 컨센서스 기준, 자사주비율 및 소각비율은 상장주식수 대비 비율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Part 2. 걱정인형 만들기?

경기선행지수, 반도체 Peak 우려? 오히려 '반도체'에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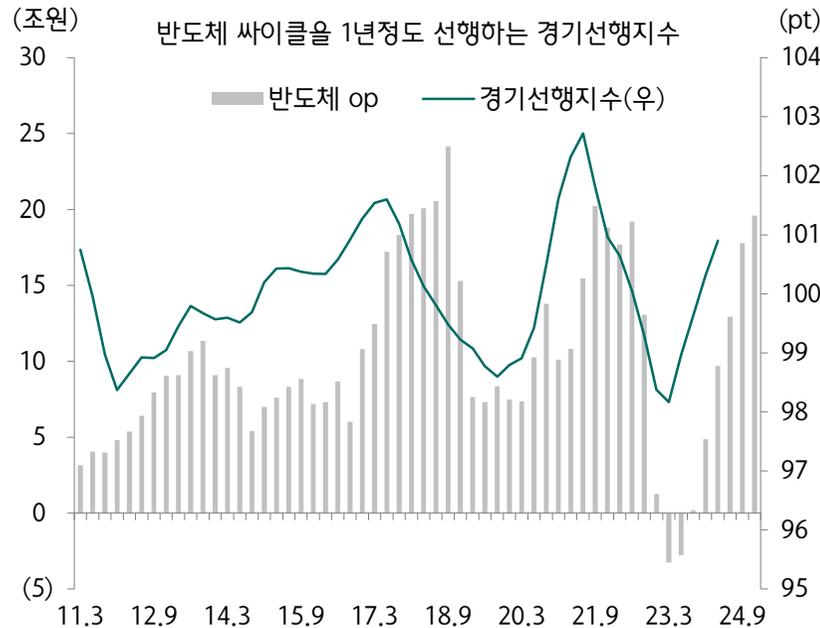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실

Quant/파생 이경수 gang@hanafn.com

## 한국 경기선행지수 및 반도체 Peak는 우려가 아니며 분명히 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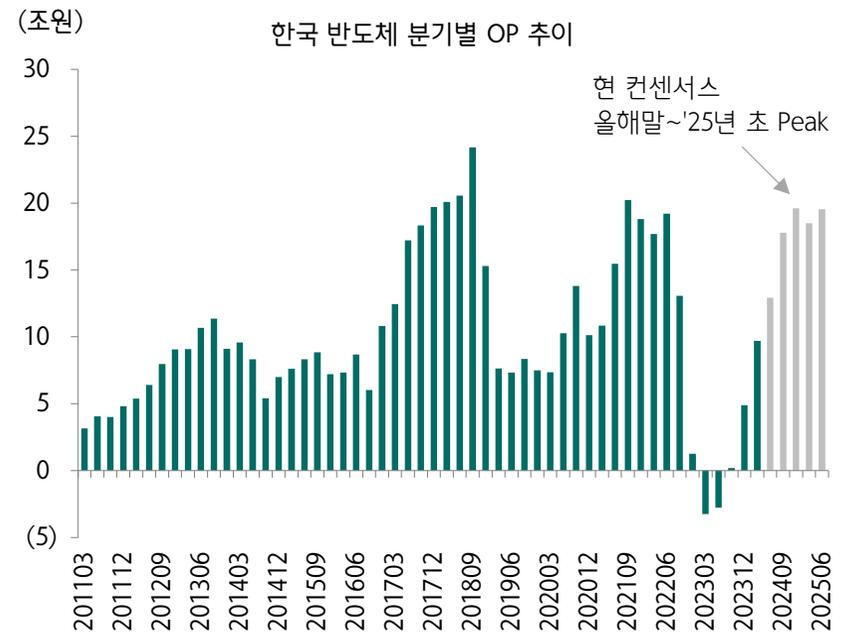
- 한국 경기선행지수와 반도체 Cycle은 밀접한 관계이자 투자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잣대
- 경기선행지수는 이름답게 반도체 분기별 이익을 약 1년 정도 선행하는 모습
- 최근 반도체 이익 추정치는 상향 중, 현재 4Q24F OP 추정치가 19.6조원까지 상향된 모습(3Q18F OP 24.2조원 MAX)
- 평균 반도체 상승 사이클 기간 2년, 작년 1분기 저점 가정하면 '25년 1분기 실적 정점 가능성

### 반도체와 한국 경기선행지수의 연동성



주: 2Q24F~3Q24F 반도체 OP는 컨센서스 기준  
 자료: Quantiwise, Bloomberg, 하나증권

### 한국 반도체 분기별 O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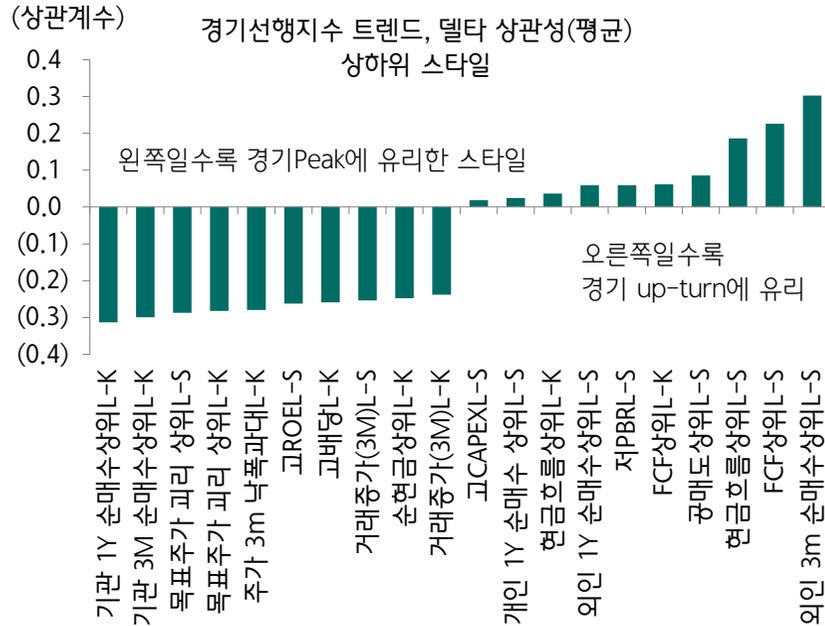


주: 2Q24F~3Q24F 반도체 OP는 컨센서스 기준  
 자료: Quantiwise, Bloomberg, 하나증권

## But, Peak 구간에는 오히려 반도체 및 대형주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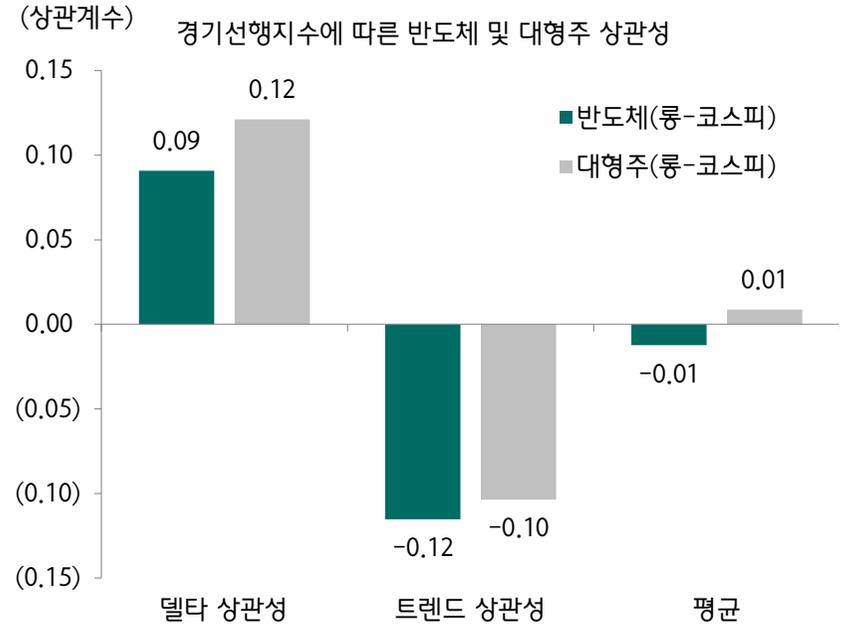
- 반도체 피크 전에 경기선행지수 Peak가 1년 선행, 결국 경기선행지수가 더 일찍 Peak 할 것
- 하반기 예상되는 경기선행지수 하락 시, 기관 순매수, 목표주가 괴리 상위, 고ROE, 고배당 등 퀄리티 버팀업 스타일 유리
- 다만, 중요한 것은 반도체 및 대형주 성과는 경기선행지수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점
- 경기 Peak 시, 델타 상관성은 매도 의견, 다만 트렌드 상관성은 매수 의견 → 다시 사이클이 돌아온다면 매수 시그널인 셈

경기선행지수 하락시 버팀업 위주의 스타일 강세('17년~현재 기준)



주: 컨센 존재 기업 중 상하위 각각 20% 동일 가중 룡-숫, 월간 리밸런싱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선행지수와 반도체 및 대형주 트렌드 및 델타 상관성 서로 엇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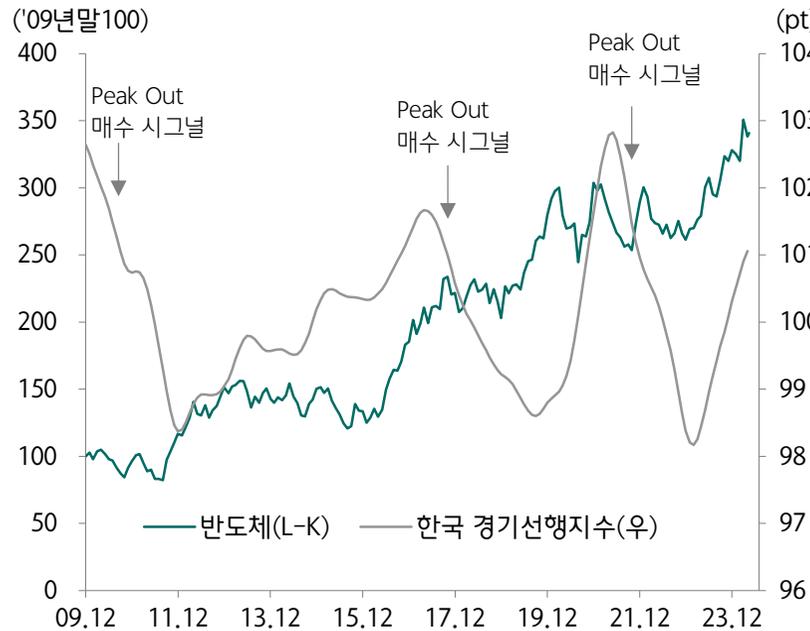


주: 코스피대비 반도체 및 대형주 상대수익률 기준, 델타는 변화율, 트렌드는 원지수 기준  
자료: Quantiwise, 하나증권

## Peak Out 되자마자 반도체 비중확대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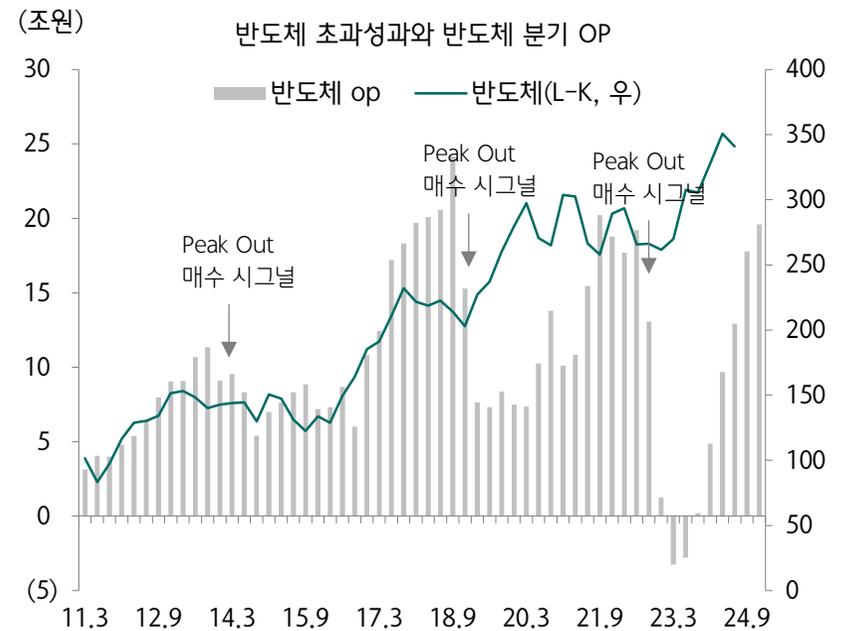
- 반도체 주가 ≠ 경기선행지수, 경기선행지수는 트렌드 사이클이 명확한 반면 반도체 초과성과는 우상향
- 반도체 주가 ≠ 반도체 이익, 반도체 이익 역시 횡보 트렌드지만 반도체 주가의 프리미엄은 우상향 중
- 글로벌 필수재인 반도체의 사이클에 대한 믿음의 결과 반영 중

경기선행지수와 반도체 코스피대비 초과성과 추이



주: L-K는 (반도체 지수 - 코스피 지수) 의미  
 자료: Quantiwise, Bloomberg, 하나증권

반도체 분기별 OP와 반도체 코스피대비 초과성과 추이



주: L-K는 (반도체 지수 - 코스피 지수) 의미  
 자료: Quantiwise, Bloomberg, 하나증권

# Part 3. 배당 등, 기타 증장기 알파 전략

하나 배당모멘텀 모델 및 그 밖 알파 모델 소개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투자분석실

Quant/파생 이경수 gang@hanafn.com

## 코스피 고배당지수 코스피대비 아웃퍼폼 뚜렷, 하나 배당성장 모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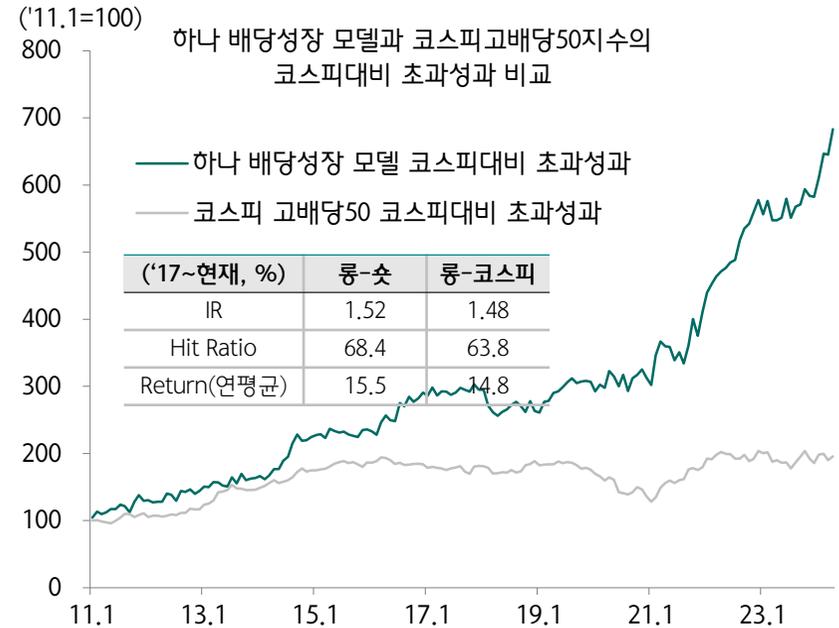
- 코스피 고배당50 지수의 절대성과(배당재투자분 포함) +254%
- 코스피 고배당50 지수의 코스피대비 초과성과는 '11년 이후 현재까지 +189%p
- ‘고배당주’와 시너지가 나는 스타일은 ‘순익 상향’(배당재원 증가)과 ‘개인 1년 순매수강도 상위’(기관 및 외인 과매도)
- 하나 배당모멘텀 모델, '11년 이후 코스피대비 +682%p 초과성과

### 고배당 스타일은 증장기적으로 시장대비 초과성과 뚜렷



자료: KRX, Quantiwise, 하나증권

### 하나 배당모멘텀 모델(배당 쿠폰 미포함)은 코스피대비 무려 +682%p



주: 컨센 존재 기업 중 상위 20% 동일 가중 롱-코스피, 일간 리밸런싱 기준  
 자료: KRX, Quantiwise, 하나증권

## 현재, 하나 배당 모멘텀 모델 포트폴리오

- 순익 상향(1M), 고배당수익률, 개인순매수강도(1Y) 팩터를 이용한 상위 종목군은?

### 하나 배당 모멘텀 모델 현재 포트폴리오(순익 상향, 고배당수익률, 개인순매수강도 스코어링 상위 종목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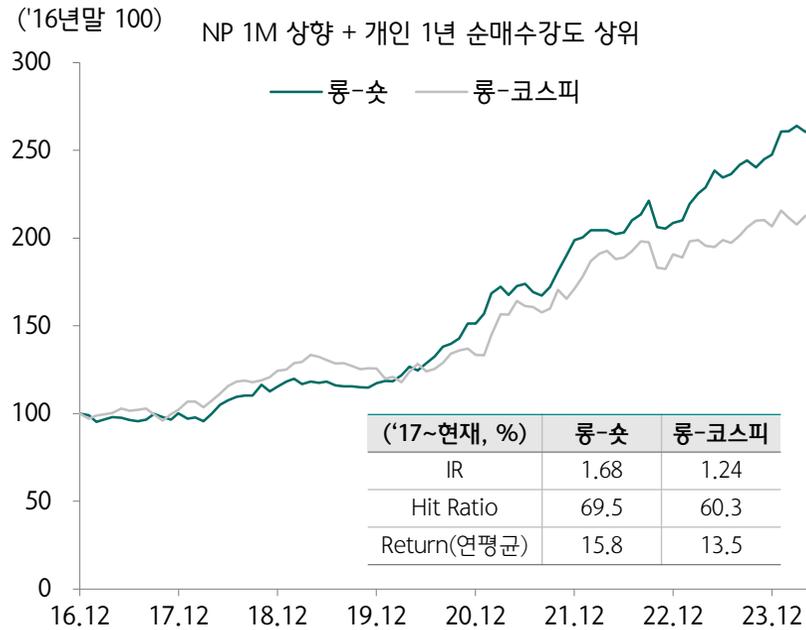
종목	24년 배당수익률 (%)	12M Fwd. NP (1M 변화, %)	개인순매수강도 (1Y, %)	12M Fwd. PER(배)	12M Fwd. PBR(배)	주가 수익률 (3M, %)
GS건설	3.1	42.7	10.9	5.3	0.29	6.1
에스에프에이	1.6	44.2	6.6	7.0	0.92	8.9
LX인터내셔널	4.9	6.5	7.5	4.5	0.43	7.0
엔씨소프트	1.4	7.8	9.2	23.7	1.41	5.8
DB하이텍	2.2	22.9	3.2	7.4	1.06	-12.7
LG생활건강	1.0	14.0	4.5	22.0	1.37	39.8
HL만도	1.9	15.3	3.6	6.7	0.77	12.9
롯데정밀화학	4.1	3.3	5.7	7.0	0.50	-3.9
현대건설	1.8	8.3	4.3	6.4	0.48	5.7
NAVER	0.7	9.2	3.7	18.9	1.22	-9.4
POSCO홀딩스	2.5	(7.4)	21.8	15.3	0.56	-8.9
LX세미콘	2.7	2.9	3.9	6.4	1.27	-9.2
오리온	1.5	1.0	7.2	8.4	1.30	-2.7
HD현대건설기계	1.9	1.8	5.5	6.2	0.63	4.3
JYP Ent.	1.0	(8.2)	38.5	15.7	5.12	-21.7
강원랜드	5.5	0.1	4.9	12.1	0.87	-6.6
이마트	3.3	(13.4)	12.5	15.9	0.15	-16.5
코오롱인더	3.2	0.5	4.4	8.6	0.43	-1.1
현대해상	7.3	1.1	2.6	2.9	0.40	1.5
LG화학	1.1	(5.3)	8.7	14.8	0.97	-16.8
한온시스템	5.0	(11.0)	5.6	14.2	1.20	-11.1
LS	1.1	2.3	3.0	10.6	0.93	65.7
신세계	2.4	9.3	1.3	4.8	0.39	-4.8
GS리테일	3.4	(1.9)	3.9	8.4	0.51	-7.8
동원산업	3.5	0.5	2.8	5.3	0.49	1.9

주: '24년 컨센서스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개인 순매수 상위(기관 및 외인 과매도) 중 순익 상향 종목군 찾기 전략

- 개인 1년 순매수 상위 종목 중 순익 전망치 상향 종목군은 증장기 성과가 매우 높았음
- 상하위 40개씩 동일비중으로 '17년도~현재까지 연 평균 성과를 측정해본 결과, 롱-숏 및 롱-코스피 각각 +15.8%p, 13.5%p
- 개인 순매수 상위는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라는 의미보다는 기관 및 외인 과매도 의미가 훨씬 클 것
- 기관 및 외인 수급이 적고 실적이 올라가는 흐름의 종목군이 성과가 높았다는 결론

### 순익 1개월 상향과 개인 1년 순매수 상위 조합 팩터 백테스팅 결과



주: 컨센 존재 기업 중 상위 20% 동일 비중 롱-숏 혹은 롱-코스피, 월간 리밸런싱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순익 1개월 상향과 개인 1년 순매수강도 스코어 상위 종목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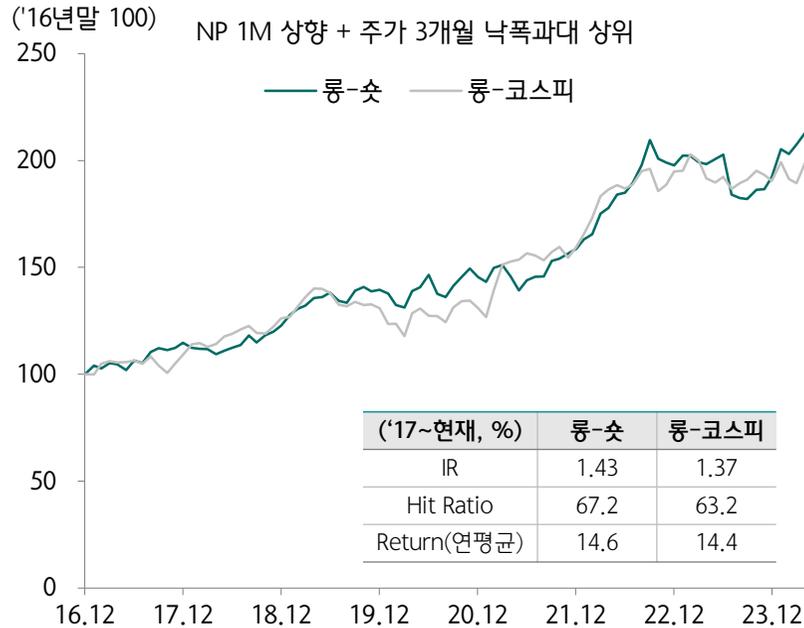
종목	시가총액 (억원)	12M Fwd. NP (1개월 변화, %)	개인 1년 순매수강도(%)
GS건설	13,471	42.7	10.8
네오위즈	5,068	7.2	16.0
두산퓨얼셀	14,245	15.8	8.1
엔씨소프트	47,311	8.7	9.1
제이앤티씨	10,997	17.2	5.6
LX인터내셔널	11,337	6.5	7.2
LG생활건강	71,063	14.0	4.3
DB하이텍	19,158	22.9	3.3
현대건설	39,086	8.3	4.2
비에이치	8,065	5.0	5.6
HL만도	17,562	13.9	3.5
POSCO홀딩스	340,399	-2.8	21.7
NAVER	306,140	9.7	3.5
롯데정밀화학	12,023	3.3	5.8
JYP Ent.	21,355	-7.4	39.8
와이지엔터테인먼트	8,000	-7.8	26.1
오리온	36,531	1.0	7.2
LX세미콘	11,808	2.9	4.5

주: 컨센서스 기준, 순매수강도 = 순매수금액 / 시가총액으로 계산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주가에 반영된 실적 상향을 감안한 전략

- 컨센서스가 주가에 후행하는 경우가 많음(주가가 컨센서스를 선행)
- 결국 컨센서스 변화에 주가가 상승한 부분을 차감해줄 필요가 있음
- 순익 상향 + 주가 낙폭과대 팩터를 조합하여 백테스팅한 결과, 롱-숏 및 롱-코스피 각각 +14.6%p, +14.4%p
- 컨센서스 상향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을 선택해야 할 필요

### 순익 1개월 상향과 주가 3개월 낙폭과대 상위 조합 팩터 백테스팅 결과



주: 컨센 존재 기업 중 상위 20% 동일 가중 롱-숏 혹은 롱-코스피, 월간 리밸런싱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

### 순익 1개월 상향과 주가 3개월 낙폭과대 스코어링 상위 종목군

종목	시가총액 (억원)	12M Fwd. NP (1개월 변화, %)	3개월 주가 변화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55,124	15.0	-19.8
SK네트웍스	11,418	9.2	-23.4
코스모신소재	47,076	11.6	-17.6
DB하이텍	19,158	22.9	-13.3
카카오	208,397	3.2	-19.9
SK	119,606	4.8	-15.8
디어유	6,077	1.7	-20.9
SFA반도체	9,703	26.2	-8.2
티웨이항공	5,912	16.4	-9.3
컴투스	5,566	12.5	-9.3
HMM	113,829	25.8	-7.3
영원무역	17,215	-0.4	-21.0
미래에셋생명	9,665	3.5	-12.2
NAVER	306,140	9.7	-8.0
JW중외제약	7,067	4.0	-11.1
카카오뱅크	113,507	-2.4	-20.9
OCI홀딩스	19,489	17.0	-6.2
종근당	13,583	11.8	-7.2

주: 컨센서스 기준  
 자료: Quantwise, 하나증권